

암에 있어서 침구치료의 역할

좌장 **조기호** 교수
(경희의료원 한방내과)

강사 1 **암센터에서 한방진료의 역할**
최도영 교수 (경희의료원 암센터 한방진료팀)

강사 2 **암에 대한 침치료의 역할**
시모야마 나오히토 박사 (일본 토치기현립 암연구센터 수술부장)



제14회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 _ 시민공개건강강좌

주제 : **암에 있어서 침구치료의 역할**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좌장
09:00~09:55		등록 및 접수	
09:55~10:00		모시는 말씀	
10:00~10:50	암센터에서 한방진료의 역할	최도영 교수 (경희의료원 암센터 한방진료팀)	조기호 교수 (경희의료원 한방내과)
10:50~11:40	암에 대한 침치료의 역할	시모야마 나오히토 박사 (일본 토치기현립 암연구소 센터 수술부장)	
11:40~12:00		질의 및 응답	
12:00~12:10		폐 회 식	

| 목 차 |

- 개회사 _ 시민과 함께하는 대한한의학회 ③
 - 김성수 회장 (대한한의학회)
- 강사 1 _ 암센터에서 한방진료의 역할 ④
 - 최도영 교수 (경희대학교)
- 강사 2 _ 암에 대한 침치료의 역할 ⑥
 - 시모야마 나오히토 박사 (일본 토치기현립 암연구소 센터)

시민과 함께하는 대한한의학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성수입니다.

최근 생명공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질병과 건강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암은 치료방법 및 치료성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암진단을 "사형선고"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암환자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치료성적이나 생존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5년 생존율'을 운운하는 질병은 암 밖에 없기 때문에 암이 국민들에게 주는 공포는 큼니다. 여기에 암환자들은 질병 그 자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가의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곤란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민족의 삶을 지탱해 온 훌륭한 유산이자 보배입니다. 그간 한의학은 암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오히려 암 환자에 대한 한방진료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수의 환자들만이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의학이 생소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한약과 침, 뜸을 암 환자의 진료에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침과 뜸을 포함한 한의학 치료법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정작 암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는 물론이고 암이 한방진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조차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치료의학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이 되기 위해, 그리고 전국민들이 믿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 다가가자 '암에 있어서 침구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시민공개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시민공개강좌에서는 국내외 한의학, 특히 침구치료의 암에 대한 치료 영역, 치료방법, 치료효능 및 주요 역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국내외 암환자 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분의 연좌를 모셨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한의학 및 한의학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미있는 기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이처럼 뜻 깊은 자리에 흔쾌히 참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중한 원고를 제출해 주신 국내외 발표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국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31일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성수



강사 1

암센터에서 한방진료의 역할

경희의료원 암센터 한방진료팀 **최도영**

암은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세계 성인 인구의 1/4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암의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006년은 313.5명이며, 2007년은 32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68,9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8.0%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암 치료기술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숨진 사람이 인구 10만명당 14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치료분야에서 서양의학은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암은 서양의학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 중의 하나입니다. 한방에서의 암은 정신적인 인자와 육체에 의한 외적인 인자 그다음으로 음식을 발생원인으로 보며, 이들 인자에 의하여 사기가 생기면 기혈의 순환을 막아 어혈이 생기고 독소나 노폐물의 담적을 발생시켜 암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한방치료는 이미 많은 임상을 통하여 항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즉 오심, 구토, 백혈구 혈소판감소 등의 조절기능 저하, 신경독성 등을 개선시켜 주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며 삶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한방치료의 장점은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과 병용하면 부작용을 감소시켜주어 항암치료를 비교적 쉽게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항암치료가 끝난 후에는 면역기능 등 신체기능을 강화시켜 전이와 재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의 암치료는 인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부정법, 발생한 종양에 대해서 항암작용이 있는 한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살해하거나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키는 거사법이 있으며 부정거사법이란 부정과 거사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서양의학에 비유하면 부정법은 면역치료를 가깝고 거사법은 수술치료 및 항암치료에 비유할 수 있으며 부정거사법은 항암면역치료 즉 일명 키테일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의 암치료 방법은 우선 한약물, 침, 뜸이며 그 외에 기공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체질, 양방치료의 경과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암센터에서는 임상 경험과 동물실험을 통하여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한약재를 이용하여 생기소암단, 건칠단, 원기젤리등 암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하고 제형변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침 중에서 봉독약침요법의 항염작용과 신경재생 및 어혈제거를 통하여 항암치료로 인한 손발저림을 개선과 암성통증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뜸요법과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기공요법이 시행됩니다. 이와같은 한방치료의 효능에 대하여 제가 암센터에서 경험한 임상중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약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교수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교수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진료기획부원장
- 경희의료원 암센터 한방진료팀 진료교수
- 경희의료원 두통 & 척추관절클리닉 진료교수
- 경희의료원 동서관절류마티스센터 진료교수
- 경희의료원 동서 통증 & 관절센터 진료교수
- 현 대한금연학회 부회장

◆ 학회활동

- 전 대한침구학회 회장
- 전 대한한사의협회 학술이사
- 현 대한암한의학회 부회장





강사 2

암에 대한 침구치료의 역할

일본 토치기현립 암연구센터 수술부장 시모야마 나오히토

저는 암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동양의학인 침구치료가 서양학과 협진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암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의료로서 완화케어(care)가 있는데, 완화케어에 있어서 침구치료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암환자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호소하며, 의료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양동통치료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여년전의 일본은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힘들었지만, WHO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암의 통증은 80~90% 이상을 치료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WHO 방법에 따라서도 개선되지 않는 통증이 아직 존재하고, 그러한 통증은 저림을 수반하는 통증 등이 중심이며, 그에 대해서는 모르핀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WHO 방법이 중심이 되고 있는 모르핀을 투여해도 그 부작용인 변비, 졸음 등 때문에 생활의 질(QOL)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암에 대한 서양의학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지만, 서양의학에 따른 치료의 불충분한 점을 동양의학인 침구치료와 협진함으로써 암환자의 QOL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암임상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근무지인 국립암연구센터에서는 20여년전부터 서양의학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침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용은 통증뿐만 아니라, 변비, 저림, 피곤함 등 환자의 많은 고통에 대해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유효성을 임상시험에 의해 조금이라도 증명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양학과 동양학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암환자의 QOL을 떨어뜨리는 고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며, 그에 따른 서양학과 동양학의 협진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 약력

- 성 명 : 시모야마 나오히토(下山 直人)
- 현 직 : 일본 토치기현립 암연구센터 수술부장
- 학 위 : 1992년 6월 치바대학 의학박사 학위취득
- 약 력 : 1987년 4월 치바대학 의학부 전임강사 (마취학교실)
 1995년 4월 미국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동통완화care科 research fellow
 1996년 4월 미국 Cornell대학 의학부약리학교실 research assistant 겸임
 1999년 6월 일본 국립 cancer center 중앙병원 제2외래부장 (완화care 담당)
 2006년 4월 일본 국립 cancer center 중앙병원 수술부장
 2007년 4월 일본 국립 cancer center 중앙병원 수술.완화의료부장
 2010년 4월 독립행정법인 국립cancer center 중앙병원 수술.완화의료부장
- 비상근 : 2007년 4월 테이쿄대학 의학부 pain-center 임상객원교수
 2008년 4월 쿠마모토대학 의학부 의학과 임상교수
 치바대학 의학부 비상근강사, 도쿄의치대학 비상근강사

◆ 학회활동

- 일본완화의료학회이사, 일본 psycho-oncology학회이사, 일본완화의료학회 감사
- 일본임상마취학회 평의원, 칸토 다기관 완화 care 연구회 간사
- Opioid peptide연구회 간사
 (이하 회원) 일본암학회, 일본마취과학회, 일본동통학회, 일본임상중양학회
 American Pain Society,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merican Academy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Society for Neuroscience